

“제주형 행정체제 답 정해놨나”

전문가 토론회... ‘기초단체 부활’ 놓고 비판·의문 ‘붓물’

“특별법·수백개 법
개정해야 하는데
어디 근거 둔 건가”

(사)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최영호)가 최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제2차 중간 보고회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적합 대안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안을 제시한 가운데, 용역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13일 오후 제주문화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2차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는 학계에서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 중앙대학교 홍준현 교수가, 언론에서 뉴제주일보 부남철 편집국장,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주주민자치연대 박외순 대표가, 제주도의회에서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

2동)이 참석했다.

가장 먼저 토론에 나선 한동수 의원은 “제시된 적합 대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된 대안이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며 “때문에 기존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정해진 답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준현 교수는 “연구가 검토 대안을 8개에서 6개, 2개로 추리는 제한적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든다”며 “검토되는 대안과 대안간의 통합과 조화를 통해 새로운 안을 만들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남철 국장은 “지금 제시된 적합 대안들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공통점이다.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의 행정체제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외순 대표는 “시민단체 입장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에 대해 찬성하지만, 이번 연구용역진이 제시한 최적의 안은 모형만 다를 뿐 모두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이라는 점에서 ‘답정너’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최적안 도출 과정에 전문가 표본 부족, 여론조사 미실시 등 미흡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기 교수는 현행 체제의 주요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뒤, 용역진이 제시한 ‘대안별 적합성 검토’ 자료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민 교수는 “용역진이 제시한 자료에는 법인격 있는 지방자치단체 모형이 특별자치도 모형보다 압도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 결과가 담겨 있다”며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고, ‘제주특별법’과 수백 개의 일반법을 개정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더 수월하다는 논리는 과연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13일 진행된 제주국제크루즈포럼에서 실버시 크루즈 관계자가 선사 소개를 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 제공

“제주에 기항하는 선사 늘리겠다”

국제크루즈포럼 2일차...비즈니스 세션 돌입
운항계획 브리핑부터 B2B 네트워킹 등 진행

지난 12일 막이 오른 제10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이 2일째를 맞아 본격적인 비즈니스 세션에 돌입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13일 메종글래드호텔 제주 컨벤션홀에서 제주국제크루즈포럼에 참가한 글로벌 선사들의 브리핑과 B2B 네트워킹 등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선사 브리핑에는 올해 17만급 초대형 크루즈선을 아시아 시장에 투입한 MSC 크루즈, 일본을 거점으로 한

국가까지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프리세스 크루즈, 그리고 세계일주와 극지방 탐험과 같은 다채로운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실버시 크루즈가 참여했다.

글로벌 선사들은 선사 소개와 더불어 앞으로의 운항 계획을 밝힌 가운데 MSC 크루즈 관계자는 “올해 총 22차례 한국 기항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기항 횟수를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이어 마련된 B2B 네트워

킹 자리에서는 글로벌 선사, 대형 여행사, 국내외 기항지, 도내 업체 등 총 34개의 기관과 업체가 참가해 44건의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됐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크루즈 하면 하나의 이미지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번 포럼에 참석한 선사들만 봐도 각 선사는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며 “브리핑을 통해 최근 글로벌 선사들이 각 기항지에서의 경험과 협력을 강조한 만큼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제주에 보다 많은 선사들의 크루즈가 기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stafs@jejuPress.co.kr

도,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쟁걸음’

추진전담팀 첫 회의...장·단점 등 다양한 분석 제시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본격화된다.

제주도는 13일 오후 도청 2층 삼다홀에서 도와 도의회·학계·의료계·도민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제주권 상급종합병원지정 추진 전담팀(TF)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에서는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해 기간 제주도의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분석한 ‘제주도 종합병원 진료 인프라 현황 분

석’ 결과 설명에 이어 위원들 간 토론이 이어졌다.

또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장·단점에 대한 다양한 분석 및 의견이 제시가 이뤄졌다.

도민 입장에서 도내 상급종합병원 이용으로 수도권 원정 진료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를 감소, 난이도 높은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 도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통한 도내 종합병원 진료 수준 향상 토대 마련 등이 장점으로 꼽혔으며, 단

점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 상승, 상급종합병원 지정 병원 이용 시 1~2차 의료기관(병·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야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 점 등이 제시됐다.

도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제안과 의견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친 후 실현 가능한 제안은 즉시 추진하는 한편,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2024년도 본예산안을 확보하는 등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도 전역에 열대야 기승...올 들어 8일째

제주 전역에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3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 아침 사이 지점별 최저 기온은 북부 26.3도, 서부 25도, 동부 26.2도, 남부 25.7도 등으로 도내 전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다.

지점별 열대야 일수는 북부의 경우 8일로 가장 길었다. 서부와 성산은 2일, 서귀포는 4일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밤사이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인 가운데 전날 낮에 오른 기온이 내려가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13일 낮 동안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면 열대야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외부 기온이 25도를 넘으면 사람이 쉽게 잠들기 어려워 더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이서희 기자 stafs@jejuPress.co.kr

클린하우스서 실탄 발견...무기관리 관철나 4번 / 차량 추락사고 빈번 5번

토·일요일자 신문 쉽다

제5회 농촌융복합 제주국제박람회
2023 K-농촌융복합산업 국제포럼

2023. 7. 21 (금) 7. 22 (토) 7. 23 (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푸파페 제주를 즐기기 위한 CHECK LIST!

- 최고의 '메이드인제주'만 모인 마켓 플레이스
청년농부 장, 로컬푸드, 전통주, 화장품, 커피, 와인 등 맛난 먹거리와 제품 푸짐
- 직접 보고 만들고 즐기는 온가족 참여 가능한 체험공간
다양한 만들기와 곤충 체험, 건강한 메밀 풀장, 간식과 음료까지 온가족이 즐겨요
- 푸파페 제주의 하이라이트는 팡팡 쏟아지는 선물
푸파페 OX퀴즈 한마당, 매일 100명에게 쓰는 '명수품 이벤트', 그 외에도 푸짐한 선물 이벤트까지!
- 푸드테크 & 농촌융복합산업 글로벌 전문가 총출동
국내는 물론 일본 미국 브라질 등 농촌융복합산업 국제전문가 모인 국제포럼도 주목!

사전등록 이벤트 참여하면 당첨자는 현장에서 선물이 와르르!

푸파페 제주 참가객에게 제공하는 경품 이벤트! 추첨을 통해 당첨자는 현장에서 상품 지급

푸파페이벤트사전등록

공식 인스타그램

* 이벤트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식 SNS 참여를 위해 미리 사전등록 및 인스타그램 팔로

주최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주관 **b:**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사단법인 제주6차산업협회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미디어 파트너 **제주의소리** 제주 CBS